SARANG

뉴스 02
전남 공공건축가들 공공건축을 이야기하다
2023년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에 안태경 건축사

뉴스 03
축구공으로 하나된 전국 건축사들
올해 첫 치른 건축사 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시론 04
강필서 논설위원 _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종합 05
사랑에서 _ 방직공장 터의 운명을 시민의 손으로
건축사 만평 _ 아파트 절벽

전북 지역 뉴스 06-07
건축사속으로 _ 군산지역건축사회
전주건축사회 용도용적제 도입 반대

전남 지역 뉴스 08-09
고흥, 해남, 구례에 청년주택
건축사속으로 _ 순천지역건축사회

광주 지역 뉴스 10-11
광주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미술전시 축제 광주비엔날레 예술여행지로

오피니언 12
사랑&시선 _ 주거권과 전세사기
한 편의 시 _ 마음이 흔들릴 때

건 축 문 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05.162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전남 공공건축가들, 공공건축을 이야기하다

공공건축가 간담회…교육 및 발전 방향 논의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선진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9일 전남도청에서 민간전문가 대상 공공건축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승광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참여한 공공건축가들은 지난 2022년 7월 임기 2년으로 선임된 건축사, 도시계획 또는 조경 기술사, 교수 등이다. 간담회는 코로나 상황이던 1기 때와는 달리 대면으로 열려 공공건축 정책과 바뀌어진 설계 공모제도 이해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특강에 이어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가 역할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 △설계 공모 모니터링 진행상황 여부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참여 △기후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설계디자인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공공건축가 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 제공

참석자들은 "도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공공건축과 공공사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건축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을 취합해 전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축 및 도시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기 공공건축가로 총 괄건축가 1명을 비롯해 총 31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2년동안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사업 기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22개 사업에 52건을 자문했다. 2기 전남도 공공건축가는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2기 전남 공공건축가들은 올해만 7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자문했다. 순천과 무안에 각각 건립 예정인 청년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비롯해 4건의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해정 전남도 팀장은 "건축 분야 전문가인 공공건축가들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사업에 있어 다양한 자문은 사업 계획과 진행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 의미도 각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해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에 안태경 건축사

9월 12일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때 시상

2023년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으로 안태경 건축사가 선정됐다.

안태경 건축사

광주건축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9일 제3회 이사회를 열어 광주건축사회가 2023년 자랑스런 광주건축인 후보로 추천한 안태경 건축사를 확정했다.

앞서 올해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17일 이사회에서 후보자 선정을 자문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었다.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으로 선정된 안태경 건축사는 1947년 장흥 출신으로 조선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1975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건축 설계, 건축감리 등 건축 전문인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현상 설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건축물을 남겼다.

그동안 수행한 주요 설계 작품은 광주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 해남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전남여고교사 재배치, 덕흥초등학교, 한국전력공사 완도지점, 신가중학교, 장흥문예회관, 일신중학교, 광주교육정보센터 등이다. 또한 많은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를 진행,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축문화 창달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조선대 건축과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태경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회 이사와 제7대 광주건축사회장(1998~2001년)으로 건축사 위상 제고와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23년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상 시상은 오는 9월 12일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은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전남건축단체총연합 등 건축 관련 3개 단체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은 지난해 수상자인 강남구 건축사까지 총 17명이 수상했다.

광주건축사회 반지하 주택 현장조사

건축사 440명 참여 광주지역 1427개소 대상

광주건축사들이 광주지역 반지하 주택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타 지역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인명 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 침수 취약 주택 실태 조사 필요에 의해 광주시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역 반지하 주택 현장조사에는 광주건축사회 등록 건축사 440명이 참여한다.

광주지역 조사 대상 반지하 주택은 사용 승인 10년 이내(2012~2021년) 총 1427개소이며, 동구 205개소, 서구 218개, 남구 347개, 북구 524개, 광산구 133개이다. 앞서 광주시 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물대장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관내 주택 283개소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고, 1472개소 현장 방문 조사 대상 추출을 완료했다.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조사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동구는 광주시가, 북구는 광주건축사회, 서구와 광산구는 건축가회에서, 남구는 건축학회에서 맡는다. 건축사들은 지하층 거주자 유무 현장 확인과 붕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장 조사 결과 보고는 6월 중순께 예정돼 있다.

축구공으로 화합과 우정, 하나된 전국 건축사들

전국 19개 동호회 27팀 참가…우승에 강남건축사회

전국 건축사들이 축구공으로 하나된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시설관리공단 축구장에서 제17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를 개최, 새로운 챔피언으로 서울 강남건축사회를 탄생시키고 성료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 우승팀 경남건축사 동호회를 비롯해 전국 19개 동호회 27개팀, 859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겨루고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광주건축사회 동호회는 무등산과 빛고을 등 2개팀이 출전했고 정광민 회원은 최고령으로 출전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전남에서는 40명이 전북건축사 동호회에서도 45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대회는 10년만에 지난해 재창단한 제주건축사회 축구동회회가 참가해 전국대회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매개로 건축사들이 양보없는 선의의 경쟁을 펼친 우정과 화합의 무대였다. 경기장에서는 서로 골문을 열기 위한 치열한 공수 대결과 함께 작전판을 놓고 벌이는 벤치의 지략 대결도 볼만한 눈요기감이었다. 그럼에도 경기장 안의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 부상을 염려하는 동료애를 발휘, 큰 부상 당한 선수없이 대회를 마칠수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3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맞은 회원 21명에 대한 조촐한 기념 파티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광주에서는 주정호, 전남에서는 정운기, 조익선 회원이 환갑을 맞은 주인공으로 축하를 받았다. 또한 올해 전국에서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회원 62명도 열렬한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다.

대한건축사협회장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가 대전에서 열려 전국 건축사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개회식에 참가한 전국 건축사 축구 동호회 회원들

이틀간 열전을 치른 대회 결과 5명의 신예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서울 강남 건축사 동호회가 경기도 건축사 동호회를 누르고 우승기를 품었다. 한편 별이 다섯 개나 되는 전통의 강호 광주건축사 동호회는 2개팀으로 출전해 전력 분산과 함께 선수 수혈이 안돼 예선 탈락했고, 두 번 우승한 전북 건축사회 동호회는 3개팀으로 나눠 출전, 성적보다 참여에 의미를 뒀다. 전남 건축사 동호회도 예선 탈락으로 내년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내년 대회 개최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농막도 내부 휴식공간 바닥면적 25% 초과하면 '주거용'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막의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 25%를 초과하면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토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21회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

8월 16~25일까지 작품 계획 공모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21회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가니즘 유기체'의 건축을 주제로 1차 작품 계획안 공모가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2차 패널 모집은 9월 20일까지 마련된다. 준공 부문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포트폴리오 접수를 받는다.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 1명, 서울특별시장상 최우수상 1명, 산림청장상 최우수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등 우수상 3명, 특별상 등이 수상된다. 공모전 참가 문의는 대한민국 목조 건축대전 운영위원회로 전화(02-518-0610)하면 된다.

올해 첫 치른 건축사 합격예정자 448명

최종 합격자는 6월 14일 발표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 448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21일 2023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6913명이 응시해 시험 3과목을 모두 합격한 총 448명이 합격예정자로 명단을 올렸다.

과목별 합격자는 1교시 대지계획 372명, 2교시 건축설계1 873명, 3교시 건축설계2 721명이다. 연령층은 30대가 243명이고, 40대가 145명이다. 여성 합격 예정자는 137명으로 전회(38.0%) 보다 다소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합격 예정자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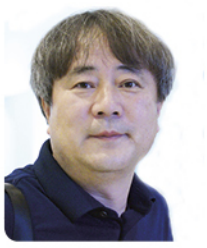
누구나 손쉽게 규제 애로사항 건의 가능

국무조정실 '개혁 신문고' 14일내 회신

국무조정실이 협회, 단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이의 처리를 답변해주기 위한 규제 개혁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부처는 14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소명이 필요할시 3개월 내로 진행되며 해당 부처에서 재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다. 접수 방법은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이메일(simungo@korea.kr),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강필서 논설위원

올해 5월 미국 기준 금리는 5.25%이다. 지방에서 건축사로 먹고 사는 우리의 생활이 먼 타국의 기준 금리에 이렇게 휘둘릴 줄 생각이나 했었는가? 글로벌시대라는 현실이 참 실감난다. 국내의 기준금리는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차이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출 우려감으로 언제 국내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자 집값은 떨어지고, 건설 자재 비용도 오르며, 건물 임대도 안 되는데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현실이 된 것이다.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공동주택 설계를 하던 건축사들이 수금이 안 되어 파산된 건설업체들의 채권자 대책회의에 참석하러 간다는 주변의 건축사의 넋두리도 들려온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설경기의 불황이라고 보기에는 골이 깊고 시린게 요즘의 상황인 듯하다.

최근 간호사법 개정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아전인수격 분쟁이나 시골의사 부족과 시쳇말로 개업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 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에도 의대 정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밥그릇 지키기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시험은 입학생의 정원을 지키면서 합격률은 높다고 한다. 최근 건축사 시험은 1년에 두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부실로 인한 사고들에 대한 여론의 압력 등으로 합격률만 높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더 배출될 지 전망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건축사를 꿈꾸며 5년제 건축학을 전공하고 수련기간을 거쳐 건축사시험을 응시하려는 예비 건축사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건축사 배출 인원만 줄이자고 하는 것도 낯부끄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고수함으로서 떠나버린 건축사 지망생을 볼 때 채용할 직원이 없다는 고충은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핀잔으로 돌아올 것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완성으로 협회의 조직에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하였지만 개업한 건축사들의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회원들을 무한경쟁 속에 알아서 제 살 깎아먹고 살라고 자유시장의 논리로 내 몰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중에 지난해 수주액이 1,000억이 넘는 건축사사무소가 9개라는데, 대부분 영세한 건축사는 남의 꿈 이야기인 듯 들린다. 협회를 구성하는 많은 건축사들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업역의 확대 등을 통해 생존의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한 시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공공건축물의 대가 기준처럼 민간 건축물의 대가 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받는 민간 건축물 건축설계 대가는 공공건축물 기준대가의 6배가 적으며 거의 30년전 대가 수준에 가깝다고 한다.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니 반가운 일이다. 물론 공정거래의 잣대를 들이대며 민간건축물 건축설계 대가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받아야할 설계비의 기준과 원칙이 생기는 만큼 적정 설계 대가를 요구하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적정한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책임지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그 같잖은 설계비 경쟁을 시키는 업자의 횡포에 낮은 설계비 제안을 고민했던 많은 건축사들의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낮은 설계비로 수주한 일들이 결국 내면의 갈등 속에 건축사 본연의 일과 책임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낮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축설계 업무는 따라가기 힘들만큼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공사의 부실과 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법은 강화되고 변경되며, 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 환경과 생태에 대한 건축적 반영 등으로 끊임없이 제도와 규제 및 심의가 생기고 있다. 또한 계약된 설계가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돼도 수금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BF인증 받는 절차에만 6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적체된 적도 있고 그 밖에도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경관심의 공공심의 등 업무는 늘고 복잡해지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양상이다. 그로 인해 파생된 인증대행 및 업무대행, 출력소 등 업체들만 배불리고 건축사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들만 전개되는 셈이다. 사실 설계는 소요 기간이 곧 비용인 셈인데 여러모로 손해가 많다는 것이다.

예전에 구청에서 몇 천원 받고 사용승인 업무대행하던 때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좀 나은 대가 기준도 만들었고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비에 포함된 무료 감리비도 설계 감리 분리를 통해 비용을 받고 있어 개선된 부분도 있다. 이렇듯 제도의 개선 및 정립을 통해 만들면 업역의 확장 및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싶다. 제대로 된 대가기준을 받는 민간건축물 설계 대가를 법제화해서 지켜야하고, 각종 인증제도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증액 또한 설계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각종 심의 비용 및 시간의 대가도 계산되는 것은 마땅하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계획서의 작성도 대가를 받고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 의도 구현비도 받을 수 있는 대가이다. 은행 수수료 내고 병원에 진찰료 내면서 계획 설계비 못 받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킴으로써 남들보다 나은 실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생존을 위해 문어발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다양한 업역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사신문에 의하면 최근 전기통신이 건축설계에서 분리된 것처럼 해당 전문가 집단에서 구조영역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하나, 한편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도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만 해서 먹고 살기엔 어렵다. 각종 인증제도의 수행도 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해체계획서의 작성도 시공전문가나 구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잘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있어 자극이 된다. 건축물 관리법의 벌칙규정이 세다고 하지만 해체감리영역도 정확한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감리절차를 통해 기피하지 않고 수행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건축물의 감정평가의 업무도 할 수 있으며 건축기획업무, 타당성 조사 등의 학술 용역 또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대지의 특성에 따른 경제성 검토의 용역, 대지 등 부동산 거래 중계, 리모델링, 도시재생, 인테리어 설계 등의 영역 또한 누군가는 시도하고 접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건축물 관리의 영역은 점차 강화될 것이며 불법적인 건축물의 정비 및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모든 건축물의 정기적인 점검 등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살기위해 준비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할 때이다.

(강필서 논설위원)

(주)신화기술

건축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일체

공동주택 및 택지사업에 따른
인허가 용역 업무일체

문의전화 : 061-334-8836

사랑에서 _ 일백한 번째

방직공장 터의 운명을 시민의 손으로

광주의 전방·일방 터와 전주의 대한방직 터,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에서 방직공장 터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섬유산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전하거나 폐쇄된 도시 내 방직공장 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도시의 방직공장 터는 그러한 사업추진의 배경과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에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추진과정과 주변 여건 및 개발 방향 등은 서로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5년에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만 해도 도심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일대가 2000년대 중반 서부신시가지로 개발되며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및 KBS전주방송총국 등과 접하게 됨으로써 전주 최대의 '노른자위 땅'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한방직 부지 약 216,000㎡를 매입한 개발회사는 2018년에 개발계획을 접수했으나,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한 논란 속에서 2020년에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회는 상업기능 중심의 개발과 전체 부지의 40%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전주시와 개발회사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에 철거를 시작한 상태다. 2018년에 제출한 개발회사의 계획서에는 지상 153층 높이 470m 규모의 전주 153 익스트림 타워, 5성급 이상의 호텔, 국제행사가 가능한 컨벤션센터, 대형복합쇼핑몰, 업무시설, 문화시설, 최고 60층 규모의 약 3,000세대의 아파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광주의 전방·일방공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행방 후에는 전남방직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1961년에는 일부가 일신방직으로 독립했다. 광주시의 팽창으로 현재는 주거지와 광주천으로 둘러싸인 구도심의 중심부가 되었으며, 터미널과 야구장에서도 멀지 않은 위치가 되었다. 개발회사는 2019년에 개발계획을 신청하였고, 2020년에는 약 300,000㎡가량의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검토와 보완 및 자문 등의 행정공방을 거쳐 2022년에 협상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광주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개발계획의 윤곽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은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호텔, 복합쇼핑몰, 업무시설, 문화센터, 학교,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해방 전·후의 건축물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역사문화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두 곳의 방직공장 개발계획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지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에 개괄적으로나마 정리를 해 보았다. 그 배후에 있는 도시의 정체성, 공간구성, 스카이라인, 교통, 주거 등의 문제와 행정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 개발이익 환수 등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민의 주인의식과 우리 도시에 대한 안목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소통과 타협, 감시와 견제, 관심과 참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서재형 건축사

(자문위원. 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정태호 건축사 作

㈜건축사사무소 영일.필(광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BS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DFI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 집 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허만수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편집국장 이용규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산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법,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 집 위 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 고 신 청 T. 062)521-0025

The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동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삼정 자이언츠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일반 철골구조
단차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화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사기간 단축
구조기술사협회 기술인증서보유

The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 대 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

건축사속으로
② 군산지역건축사회

회원 연대와 동행으로 힘든 파고 넘는다

군산시 지역건축사회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자립기반 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에 나선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군산시지역건축사회 제공

"우리 지회의 자랑은 회원 간 좋은 유대 관계와 행정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지난 11일 전북건축사회 군산시지회 사무실인 예담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서일석 회장은 회원 자랑으로 말문을 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서 회장은 지역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회원들의 강인한 연대 의식은 국가공인 전문가로서 꿋꿋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에서다. 특히 서 회장은 현대중공업 재가동, 새만금공단 기업 입주, 옛 대우자동차 공장에 들어서는 전기차 공장 등 새로운 활력들이 그나마 움츠러진 지역 경제에 햇살을 비추는 것같아 들뜬 기대감이 얼굴 표정에 역력했다.

현대중공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기의 군산시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터라 기업 유치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결국 인구가 늘어 주택들이 지어지는 연쇄적 효과와 연관이 깊음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지난 1965년 4명의 건축사로 설립된 군산시지회는 현재 5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시지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북건축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수는 익산시지회가 군산지회보다 1명이 더 많다. 군산시지회 회원 연령층은 43세부터 80세까지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인 60대는 15명으로 30%에 육박한다. 회원 자녀들이 대를 이어 건축사의 길을 걷고 있는 숫자도 10여명에 달해 눈길을 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현대중공업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인구가 28만명에서 26만명으로 떨어진 지표가 반영하듯, 지역 경제 위축은 실로 건축사들에게도 힘겨울 수 밖에 없었다. 군산시지회가 회원들의 유대 강화와 소통과 교류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내부 단결과 연대를 통해 혼자가 아닌 동행의 삶을 살아간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에는 회원 70%가 참석하고 있어 늘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40대부터 80대까지 53명 활동
매월 월례회 개최로 내부 단결
현상 공모 등 다양한 영역 확대 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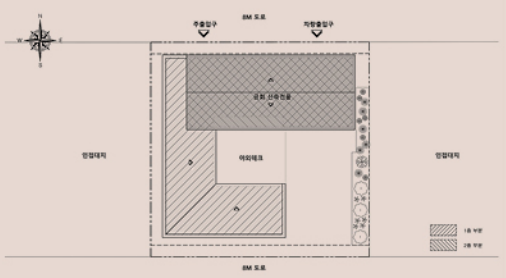
5년전 서 회장이 취임하면서 신설한 법리, 감리위원회도 3개월에 한번씩 자주 변경되는 법령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가 해야할 일도 많고 책임도 커져 지회 차원에서 건축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시지회는 회원들의 영역 확대에 변화된 기류들이 나타나 고무된 표정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2년전부터 설계 현상공모나 제한공모 등에 당선되는 횟수가 늘어 회원들에게는 서로를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건축사들이 공공기관의 다양한 위원회 참여 활동도 자기 영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회 소속 30%에 달하는 나홀로 건축사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밑작업도 활발하다. 무엇보다 군산시지회는 회원들의 일감 확대를 위해 새만금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건물 신축과 관련해 감리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군산시지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몇년 전부터 독거노인 자립원 등을 비롯해 소외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이 열악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었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회에서 500만원, 부족한 부분은 봉사활동 참여 회원 각출로 아낌없이 사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몸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성금으로 계속 이어왔다. 올해부터 소외계층 주택 리모델링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주거 안정에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월례회 장소를 호텔에서 시내 식당으로 옮긴 것도 지회에서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의미가 있는 상생을 위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회원 유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도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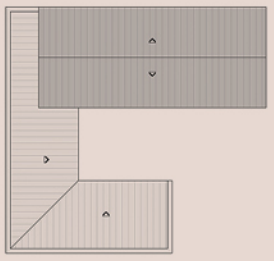
서회장은 "행정과의 주기적 모임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이해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두 어린 딸이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소음이 난다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그런 두 공주님을 위해 잘 뛰놀라고 아름다운 상상을 소망하며 소녀들의 공간을 세워줍니다.

서로 다른 외부 마감재를 사용하여 외관의 흥미로움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현재(二鉉齋)라는 주택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산 주택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하나의 집으로 중정을 두고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건축주의 두 자녀들의 돌림자 이름을 활용하여 주택 이름을 짓기도 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용도용적제 도입 반대"

전주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사회 찬반 갈려 치열한 여론전

전주시 지역건축사회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의 용도 용적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옛 도심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100%로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들어설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용도 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주시는 전주의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주차장 및 도시 기반 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어 용도용적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주시 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27일 전주시에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포함해 상가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상향 적용하는 취지의 용도용적제 신설을 전주시의 규제 완화 취지와 달리 오히려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임을 강조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용도용적제를 포기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시행하면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주지역사회가 용도용적제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으로 뜨겁다. 최근 전주시의회에 개최한 전주시 조례안 개정 토론회.

전주시 지역건축사회는 특히 "전주 지역이 주택 조성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세대 미만에 그쳤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도 용적제 신설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지역사회가 전주시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놓고 첨예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전반적인 용적률 완화 방침에, 건축계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에 각각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2일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찬반 패널들의 열띤 논리 대결을 펼쳤다.

추원호 건축사 샘문학상 특별작품상

전북건축사회 소속 추원회 건축사가 2023년 제13회 샘문학상 신춘문예 특별작품상을 받았다. 추원호 건축사는 샘문시선에서 주관하는 샘문학상 제13회 신춘문예에 연리지 연가를 비롯한 2편을 응모했었다. 추건축사는 지난 2019년 샘터문학과 한맥문학, 대한시문학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해 각종 문예지에서 수상했다. 그는 서예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전북미술대전 서예 심사위원과 창암 이삼만 전국 서화 백일대상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5년간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7조 투입

전라북도가 앞으로 5년동안 시행할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구정책민관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계획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전북'으로 정했다. 특히 정책 대상을 상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 정책 방향을 인구의 양적 분야와 인구변동 등 질적 분야를 고려하도록 변경했다. 앞으로 5년 동안 7조 원을 들여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지역특화형 비자, 빈집 재생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문세이 건축사
  세이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42

- 박 훈 건축사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8

• 변경(소재지)

- 송경규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202-2호

• 변경(사무소명)

- 오경택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이창현 건축사 /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부고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모친상 - 2023년 04월 15일(토)
- 송경규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3년 05월 07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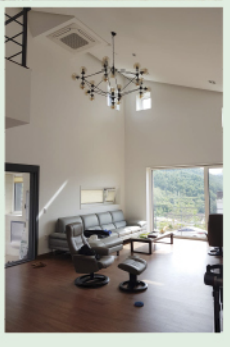
순천시 서면 저에너지 하우스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전남 순천시 중앙2길 11-5

Tel. 061-742-4680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3-33 / 대지면적 : 784.00㎡ / 건축면적 : 130.90㎡ / 연면적 : 237.21㎡ / 건폐율 : 16.69%
용적률 : 22.5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방킬라이, 루멕스, 스타코, 로이삼중유리, 고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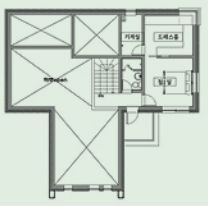


"전원마을 조성으로 만들어진 대지로 동측은 도로에 접해있고 3면은 인접대지에 접한 경사지(남북으로 고저차 4m)를 이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자연 훼손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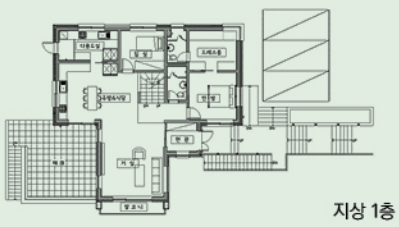
침실 및 창고가 설치된 지하층은 낮은 도로 레벨을 기준으로 형성된 마당으로 출입 하도록 계획하였고 1층은 높은 대지의 도로면과 연결되는 주차장 및 출입구를 통해 이 주택의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으로 연결된다.

전체적인 건물의 정면은 남측으로 설치하여 모든 실들의 채광 및 전망을 고려하였고, 주방과 연결된 테라스는 외부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공간으로써 휴게 및 야외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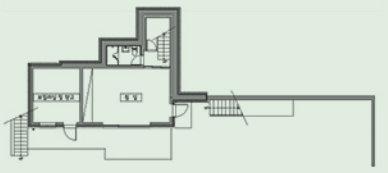
페시브하우스의 건축요소를 적용하여 설계된 건축물로 설계 초기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축주를 어렵게 설득하여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페시브하우스 전도사가 되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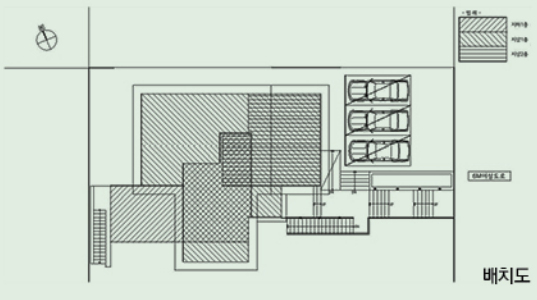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전남 고흥·해남·구례에 청년 주택

원룸 형식 30~50호…6월중 설계 공모 예정

전남 고흥, 해남, 구례에 청년 주택이 들어선다. 극심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청년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백약처방의 성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구례, 해남 등 전남 도내 3개 지역에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기획 설계 중에 있다. 해당 지자체는 기획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중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청년주택 건립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도내 3개 지역에 건립될 청년 주택 규모는 원룸 형식 30호~50세대이다. 부엌, 방, 화장실로 구성된 형태이다. 지역당 전체 사업예산은 인구 소멸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80억 정도이다. 전남도가 60%, 해당 지자체가 40%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 입주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각 시군은 준공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 도내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82만명이다. 지난 2004년 인구 200만명이 무너진 이후 고삐풀린 하향세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령층 인구 증가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의 탓이다.

전남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초고령층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전남도의 청년주택은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주거안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순천과 무안에 480억원을 투입해 건립 예정인 청년문화센터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김지호 전남도 팀장은 "전남도가 고흥, 구례, 해남 등 3개 지역에 건립하는 청년주택은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에 있다"면서 "전남 지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사속으로

② 순천지역건축사회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탐색 주력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전북 진안에서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갖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제공

회원 88명으로 전남지역 최다
법제, 교육위 통해 전문성 강화
순천만정원박람회 자긍심 갖고 참여
단독 사옥 건립 등 계획도 구체화

전남건축사회 순천시지회는 전남건축사회의 허리에 해당한다. 전남건축사회 내에서 전통과 역사만큼이나 회원 수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지난 8일 순천 장천동 (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에서 만난 정운기 순천시지회장은 "전국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천지역 상황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실력과 단결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의 고민은 전남을 비롯한 지방 건축사들의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생존을 해야 하는 절박함의 그것이다. 순천시지회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순천시지회 내에서 연장자에 속하는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꾸렸다. 과거의 영화와 전통을 잇고 미래 100년을 위한 더 큰 발전에 회원들의 큰 뜻이 모아진 것이다. 올해 출범한 순천시지회 집행부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법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위원회에 추가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두 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이 놓치기 쉬운 법령 등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건축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 또한 순천시지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발전위원회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매년 많은 수의 건축사들이 배출되며, 나 홀로 건축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회 내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러 명의 건축사들이 함께 사무실을 이루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조만간 구체적 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과 맥이 통하고 있기에 회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 순천시지회 집행부는 최근 전북 진안에서 이사회와 발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지회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순천시지회는 지난 1965년 창립되어 순천(76명)을 포함해 순천, 구례, 보성에서 총 88명의 건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령층으로는 80대, 60대, 그리고 대다수를 4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회원이 15명 속해있다. 이처럼 회원 간의 연령 편차가 크다보니 순천시지회는 회원들이 협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육대회와 선진지 연수는 올해 지회가 주력하는 행사이다. 그렇기에 지회는 오는 5월 26일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리는 회원 체육대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당초 가을에 진행해 오던 체육대회를 봄으로 바꾼 것도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회원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자긍심을 이끌어 내고 회원과 직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취지였다. 정 회장은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도 우리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올해는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기에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지회는 회원들의 단결된 화합을 통해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공헌에도 남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편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법제 연구와 행정 기관 자문에 참여하여 건축사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지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약 2,000만원)을 구입하여 지역민으로서도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순천시지회는 월세로 운영하던 협회의 사옥 건립 추진으로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새롭게 의욕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전남건축사회 순천시지회의 힘찬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 개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4월 26일 장흥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건축사 실무 교육 내용과 일정을 협의했다. 상반기 전문교육으로 기후변화와 생태도시 조성 방향(강사 김현수), 건축과 정원(강사 조동범)을 오는 6월에서 7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목조건축의 이해와 전망(강사 신창현), 4차산업과 건축(강사 강형주)을 오는 9월에서 10월 중 강좌를 열 예정이다.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다룰 윤리교육은 12월에 마련된다.

광양지역건축사회 체육대회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이학호•(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는 지난 4월 21일 광양 월드볼링장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친목 도모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행사에는 건축사 및 회원사 직원, 공무원 등 60여명이 12조로 나눠 볼링 경기로 승패를 떠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통하고 교류했다. 이학호 회장은 "코로나19로 3년만에 회원과 직원 등이 한 장소에서 체육행사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활동 영역이 다르지만 건축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영역을 조금이나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전남과학대 평생학습교육체제 협약

전남건축사회와 전남과학대학교는 지난 4월 20일 2주기 평생학습 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 혁신을 통한 성인의 생애 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운영체제 구축,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및 유연한 학사 운영,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및 공유·협업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 및 지원하게 된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를 환영합니다

- 차인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상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촌곡신가길 141

• 재입회

- 최재철 건축사 / 한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9

광주건축사들 그린 위에서 친목과 화합의 '굿샷'

회장배대회 성료…그린재킷 김권수 회원

우승자 김권수 회원(좌)과 정인채 회장

2023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그린 위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며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건축사회는 5월 16일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정인채 회장, 주정호 골프동호회장을 비롯한 골프 동호회원과 초청 인사 등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들의 우정과 화합, 국가공인 전문 건축인으로서 자긍심과 동료의식을 강화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개회 행사에서 정인채 회장은 "계절의 여왕 5월에 회원 골프대회를 갖게돼 기쁘다"면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회원들과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인채 회장, 안태경 전임회장, 안길전 전임회장, 주정호 골프동호회장, 유창균 교수, 김영희 건축사 등 시타로 막을 올린 이날 경기는 여성회원 1개팀 등 총 22개팀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다.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필드 위 회원들의 표정에서는 그간 업무 시름에서 벗어나 행복감이 넘쳐났고, 동반자들의 호쾌한 플레이에 굿샷으로 화답하는 등 웃음 꽃이 만발했다.

2023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16일 무안CC에서 열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회원 친목과 화합의 축제의 무대를 연출했다. 회원들이 라운딩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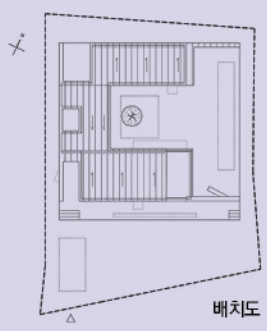
시상식에선 안천수 회원이 73타를 기록 메달리스트에 선정됐으며 우승은 김권수 회원(69타)이 영광스런 그린재킷을 입었다. 다버디상은 이기수, 조윤철 회원이 각 4개로 공동수상을 했고 니어리스트 부문에선 양동현 회원(0.9m)이, 롱게스트 부문에선 강형선 회원(270m)이 각 수상했다. 시상식 중간 행운권 추첨도 진행돼 회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HANGIL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 전문1종 설계업 / T.A.B 인증업체
종합 감리업 /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보통신,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공사업 / 소방시설 관리업 / 톨코 전남총판 소방 내진자재

주식회사 한길이앤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51
T. 061-333-7119, 334-7119
F. 061-333-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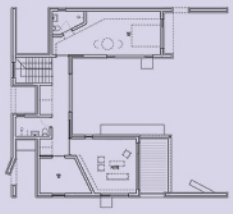
수완동에 새로 지어진 수완동주택의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은 각실로부터 각각 중앙마당을 접하면서 외부공간으로부터의 시야 차단과 내부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과 마주할 수 있게 담과 벽으로 조절을 하고 긴 복도를 통한 가족 구성원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외부 재료인 붉은 벽돌은 정적이면서 예부터 지금까지 많은 주택에 사용되어온 재료로 편안함을 준다.

거실은 따뜻한 남쪽 빛을 통하면서 야생화 등등 화초로 시야를 즐겁게 하고 안방의 사적 공간은 중앙마당을 바라보게 계획되어졌다.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미술전시축제 광주비엔날레 예술여행지로 인기

개막 한달째 13만여명 방문
가족단위, 해외에서도 발길
광주건축사회도 티켓 구입

개막 한달째를 맞고 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국내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세계적 미술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예술 여행축제로 만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94일간 전시에 들어간 광주비엔날레 전시 관람객은 개막 한달째인 지난 5월 7일 현재 13만3000명이다. 이는 94일간 목표 관람객 50만명의 26%에 해당된다. 이런 추세라면 목표 50만명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재단측은 전망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가족단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 관람객을 비롯한 외국 관람객들의 발길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미술 현대미술의 담론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여행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동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리고 있다. 주제 '물처럼 부드럽게'는 노자 도덕경에서 나오는 '유약어수'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물은 부드러우나 굳세고 강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물의 이중성을 세계 각국 80여명의 작가들이 시각미술,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풀어낸다.

이번 비엔날레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전시 공간의 변화다. 1995년 개막 이후 지난 2021년 제13회 전시까지 운영된 전시 동선을 완전히 바꾸었다. 기존 전시 동선에서 출구 역할을 한 제4전시관을 제1전시관, 즉 입장문으로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의 동선의 파격을 가져온 것이다. 이경숙 예술감독에 의해 단행된 동선 파격 조치는 주제에 부응하는 역류하는 물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획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이다. 전시 구성에서도 눈길을 모은다. 그동안 비엔날레는 한마디로 실험적이고 추상적이어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었다. 이러한 비엔날레 전시 구성은 일반인들이 현대미술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했고 세계적으로 비엔날레 퇴조에 한몫을 한 요인이기도 했다. 이번 제14회 전시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잘차린 미술 밥상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미술 전문가들 역시 미술 담론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획전 형식으로 관람객에게 쉽게 접근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비엔날레의 미술관화인 셈이다. 제1전시관은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 타운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불레베즈웨시와니의 영상 설치 작품으로 시작한다. 2전시관에서는 '은은한 광륜'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일상과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저항과 연대 방식에 주목한다. 광주민주화운동, 태국 민주화운동 등이 판화와 페인팅 등 여러 형태의 작품으로 풀어진다. 3관에서는 '일시적 주권'을 주제로 스페인·영국·미국·일본 등의 다른 나라 침략과 식민지,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춘다. 1937년 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유랑의 세월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 고려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일본인 작가 영상 작품도 만날 수 있다.

5관에서는 국적을 떠나 행성인들의 개발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과 미래의 모습을 다룬다.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관 뿐만 아니라 국립광주박물관, 상무지구 무각사, 옛 한옥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 동구의 예술공간 집,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 등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번 광주비엔날레 티켓 400장을 구입해 회원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매씩 지급하고 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광주광역시가 국토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광주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가능케 됐다. 또한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기숙사, 시장·구청장이 산업, 창업,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인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특정인 참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 결과를 요약해 신속히 게재해야한다. 광주시는 5월 31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FAX 062-613-4419, E-mail: mistbur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사랑&시선 _ 네 번째

주거권과 전세사기

최근 언론 지상을 장식하는 전세사기단 뉴스는 한국인에게 주택은 주거공간을 넘어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 요소임을 절실히 일깨워준다. 불량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전세를 끼고 집 구입)으로 대거 사들인 주택을 세놓은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의 사기피해나 깡통전세 사건은 서울, 인천, 광양 등 전국에서 수 천여명을 삶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8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채 발견, 올 들어서만도 네번째 비보에 가슴이 먹먹하다. 인생의 꽃도 피워 보지 못한 20~30대 젊은이들이기에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허술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 앞에서 분통이 터진다.

국가통계상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역대 정부마다 행복주택, 국민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 등 다양한 작명으로 내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왜곡된 주택 정책에 의한 소유의 불균형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삶을 억압하는 고통거리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돈에 눈이 먼 다세대 임대주택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수많은 이들을 속이는 수법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금융 비용을 감당치 못한 주택 임대업자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와 바지사장을 고용해 대놓고 벌인 조직범죄형 사기행각이나 남의 돈을 수탈해, 자선단체에 기부행위로 자신을 '따뜻한 기업가'로 세탁하는 그 뻔뻔함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전세사기범들의 악랄한 수법에 선량한 우리들의 자녀, 형제, 이웃들은 그들의 뱃속을 채우는 먹잇감이 됐고, 피해를 막을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서 낮잠을 자다보니 허술한 법망을 노린 사기범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몇년 전 인기를 끈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들은 1980년대 서울 쌍문동 주택가의 담장을 마주한 이웃사촌들이다. 끈끈한 가족애와 따뜻함으로 이웃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만큼 정이 넘쳐났다. 이렇게 드라마속의 쌍문동과 같은 공동체 문화를 키워낸 도시형 양옥단지들은 아파트에 자리를 내줘야했다. 그래도 1990년대까지 만해도 아파트에서 천막을 치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서로 배려하는 사람냄새가 나는 공동체였는데, 이 또한 전설속 이야기가 됐다. 이후 아파트는 가족의 안락을 보장할 거처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넘어 부동산 계급사회, 아파트 정치를 낳은 주요 요인으로 고착화된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으로 치환되는 건축은 가장 손쉽고 한번에 가장 많이 돈버는 수단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터져나온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는 시대가 바뀌면서 양상을 달리한 오로지 투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건축에 대한 우리사회의 병폐와 탐욕이 뒤범벅이 된 채 녹아있는 치부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언론에서는 작금의 전세사기 사건의 주역인 다세대 임대업자들을 '건축왕' '빌라왕'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본질을 호도한다.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관련자들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도, 웬지 찜찜하다. 서민들의 강력한 부동산 소유 심리를 악용한 이들의 탐욕스러운 범죄 행위일 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시급하다고는 하나 네탓 공방으로 특별법이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하다.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헌법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한다. 주택이 생존 경쟁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갈등과 불화를 만들어 내는 암초가 아닌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연대와 통합의 디딤돌은 과연 장밋빛 희망사항일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아파트 벽에 걸린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경매부터 막아달라'고 꾹꾹 눌러쓴 피켓 글에서는 피해자들의 애타는 절규가 느껴진다.

이용규 편집국장

한 편의 시

마음이 흔들릴 때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때
울곧게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 숲으로 간다

바람 부는 날
스산하게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대밭
휘어질 듯 부러지지 않는
천둥이 치고 폭우가 내려도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처럼
고통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는
대나무 숲으로 간다

세상 일이 바르지 못하고
오장육부 흔들릴 때
대나무 숲으로 간다

하늘 향한 고드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편단심 한 길로만 향하는
밑동을 잘라내도
또다시 피어나는 인고의 세월
소리 없이 다독이는
어머니의 가슴처럼 따뜻한
대나무 숲으로 간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House N'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 2023년 1월 15일